

동북아의 중심에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인천대학교

국립대 전환과 송도 신 캠퍼스 시대의 개막

1979년 개교하여 1994년 시립대학으로 설립자를 변경한 인천대학교는 2009년 3월 국립대 전환과 함께 송도 신 캠퍼스에서 제2의 출발을 맞이하게 된다. '국립 인천대학교'의 송도 신 캠퍼스 시대 개막은 또 한 번의 용비를 선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도심형·개방형 캠퍼스로 쾌적한 교육환경과 현대적 연구시설을 갖춘 송도 신 캠퍼스에서 인천대학교는 특성화, 국제화로 일류대학을 실현할 것이다.



▲ 송도 신 캠퍼스 건설공사 기공식

④ 동북아 중심대학의 위상 견고히 다져

인천대학교는 지리적 특성과 지역적 특색에 맞춰 국제통상, 중국학, 정보통신, 생명공학, 국제물류 분야의 특성화를 추진해 왔다. 송도 시대의 인천대학교는 특성화를 더욱 내실 있게 구축하여 동북아 중심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다져 나갈 것이다. 특히 중국관련 특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언어, 문화, 역사, 예술뿐만 아니라 물류, 통상, 법률 등의 전문가를 적극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④ 국제화를 통한 세계적인 대학

인천대학교는 영어졸업인증제 시행, 학생해외문화체험단 파견, 외국 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글로벌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국제도시에 입지한 송도 신 캠퍼스에서 인천대학교는 외국 대학과의 공동 프로그램과 공동학위제 등을 도입해 국제화가 가장 앞선 대학, 글로벌 경쟁시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해 나갈 것이다.

④ 국립화를 통해 일류대학으로 발돋움

인천대학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교육구조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의 경쟁력을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하여 교육의 질적 고도화와 연구의 세계화를 달성함으로써 인천대학교는 일류대학으로 발전할 것이다.

<주요 성과>

- ▶ 2003, 2004, 2005 3년 연속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특성화 사업 우수대학 선정(100억 8천 만 원 국고 지원)
- ▶ 2002, 2003, 2004, 2005 4년 연속 정보통신부 국고지원 사업 선정
- ▶ 9개 분야 국가 시책사업 유치, 470억 원 재원 확보



➡ 국립대 전환 확정

일류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인천대학교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연구, 교육의 일류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4월 3일 국립대 전환 확정을 이루어냈다. 인천대학교의 국립대 전환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첫째, 국립대 전환은 인천대학교가 고등교육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거점대학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사업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뒷받침할 인재양성 및 학·연·산 연계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거듭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교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인천대 자체적으로는 새로운 체제의 대학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추진 중이다. 이와 동시에 연구, 교육, 행정, 인프라 혁신으로 2016년까지 세계적 지성의 요람으로 비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2008년까지 교육 프로그램 혁신, 연구지원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며 2016년까지는 교육의 질적 고도화와 연구의 세계화를 달성해 세계 100개 대학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립대 전환 추진경과〉

- 2006. 04. 03 인천대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 조인식
 - 장소 : 교육인적자원부 대회의실(정부중앙청사 1617호)
 - 참석 : 교육부총리, 인천광역시장, 인천대학교총장,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등
- 2006. 03. 31 대학구성원 국립대 전환 설명회 개최
- 2006. 03. 15 열린우리당 인천지역 정책토론회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 지원방안 및 당정협의 결과 발표)
- 2006. 03. 15 당정협의(열린우리당,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 2006. 03. 06 기획예산처 방문(기획처장, 시 행정부시장, 정책기획관)
- 2006. 01. 17 국립대학 법인화와 관련 대학구성원 토론회
- 2005. 12. 27 전체교수회의
- 2005. 12. 20 국립대학법인화연구위원회 구성
- 2005. 12. 19 교육인적자원부 방문(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 2005. 12. 16 황우여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 2005. 10. 19 인천대 국립대 전환과 특수법인화에 대한 공청회(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교육인적자원부·시·시의회·대학 관계자 등)
- 2005. 10. 13 인천대학교 구성원 토론회
- 2005. 09. 25 시민감사 강화마라톤 대회
- 2005. 09. 13 당정협의(열린우리당, 교육인적자원부)
- 2005. 09. 12 국립대 전환에 따른 행·재정 지원방안 제출(인천광역시 → 교육인적자원부)
- 2005. 09. 09 국립대 전환에 따른 행·재정 지원방안 제출 요구(교육인적자원부 → 인천광역시)

- 2005. 09. 07 민주당 한화갑 대표 방문
- 2005. 08. 09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방문
- 2005. 07. 06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방문
- 2005. 07. 05 열린우리당 지도부(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방문
- 2005. 05. 23 인천대 국립대 전환을 염원하는 시민콘서트
- 2005. 05. 18 인천대 국립대 전환을 염원하는 5.18 마라톤 걷기대회
- 2005. 05. 06 130만 명 서명부 국회(교육위원회) 및 교육인적자원부 전달
- 2005. 04. 20 국회 교육위원회 2·3차 청원심사소위원회 개최
~ 04. 28
- 2005. 04. 24 서명 130만 38명 돌파
- 2005. 04. 22 국립대 전환 범시민추진협의회 홈페이지 개설
- 2005. 04. 14 각계각층 지도급 인사 서명운동 동참
- 2005. 04. 08 국립대 전환을 위한 100만 인 서명운동 전개
~ 04. 24
- 2005. 04. 04 인천대 국립대 전환에 따른 시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 2005. 03. 25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실시
~ 04. 03
- 2005. 03. 22 국립대 추진 범시민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회의
- 2005. 02. 14 제2차 범시민추진협의회 회의
- 2004. 12. 30 '인천대학교 국립대 전환 청원서' 국회 접수
- 2004. 12. 22 국립대 전환 5차 조찬간담회(안병영 부총리, 안상수 시장, 황우여 의원, 이호웅 의원, 총장)
- 2004. 12. 17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방문(학생처장, 추진단 부단장)
- 2004. 12. 15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방문(총장, 교무처장)
- 2004. 12. 08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방문(총장, 학생처장)
- 2004. 11. 15 황우여 국회의원과 조찬 간담회(총장, 부총장, 4처장, 추진단위원)
- 2004. 10. 08 '인천대학교 국립대 전환 추진단' 구성
- 2004. 09. 23 청와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에 국립대 전환 건의
- 2004. 09. 14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인천대 국립화 건의문' 전달
- 2004. 09. 03 인천지역혁신협의회 '인천대 국립화 건의문' 채택
- 2004. 07. 08 대통령의 국립화 타당성 언급 → 교육인적자원부와 정책기획위원회에 검토 지시
"인천에 국립대가 없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고, 정원이 축소되어 가고 있으나 아무리 그래도 지역의 수요가 따로 있다. 인천지역혁신협의회에서 논의도 하고, 인천시민의 의견으로 모아주고, 특수한 상황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마련해 주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진지하게 검토"
- 2004. 03. 10 인천대학교 국립화 범시민 추진 협의회 창립
- 2003. 11. 03 인천광역시장 인천대학교 국립화 추진 선언
인천광역시의회 중앙부처에 결의문 전달
- 2003. 10. 30 국회에서 인천지역 국립대학 설치 요구

④ 첨단 교육 환경을 갖춘 21세기형 송도 신 캠퍼스

인천대학교는 오는 2009년 3월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완성되는 신 캠퍼스에서 제2의 창학을 맞이하게 된다. 송도 경제자유구역은 차세대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서 지식 정보산업 단지, 첨단 바이오 단지, 국제 업무 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인천대학교는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유일한 종합대학으로 다국적 기업과의 공동연구, 외국대학 분교 유치 및 공동학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견인할 국제적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송도 신 캠퍼스는 테마파크형 · 환경친화형 · 인텔리전트형 · 사용자중심형으로 15만 6천평의 대지 위에 조성되며 쾌적한 교육환경과 현대적 연구시설을 갖추게 된다.

〈송도 신 캠퍼스 추진경과〉

- 2006. 11. 27 송도 신 캠퍼스 기공식 개최
- 2006. 09. 20 인천대학교 이전 및 도화 도시개발사업지구 민간사업자 선정
- 2006. 06. 15 대학 이전사업 실시협약 체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6. 09. 05 송도 이전 및 이전 적지 개발사업 기본협약서 체결
- 2004. 06. 17 송도 신 캠퍼스 마스터 플랜 입찰 공고
- 2003. 12. 12 외국대학유치기획단 구성
- 2003. 11. 24 대학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 2003. 08. 25 교육인적자원부 위치 변경(이전)계획 승인 통보
- 2003. 06. 05 대학이전추진위원회 구성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키워주는 학생중심교육

④ 세계로 통하는 커뮤니케이션 - 영어졸업인증제

어학원 외국인 교수의 회화전담제 운영, 학기당 1000페이지 이상 영문읽기와 100시간 이상 영어듣기 의무화, 영어과목 4학기 계속수강 의무화 등을 통해 영어실력이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졸업자격을 제한하는 인증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④ 한 발 앞선 미래 경쟁력 - 정보화능력졸업인증제

2003학년도부터 입학생부터는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대학에서 50여 종의 정보기관

자격증을 지정, 그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고 있어 학생들의 취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정보관련 기초과목 확대, 교과과정 개편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2006년도 교환학생비율 전국 1위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평가에서 전국 1위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는 인천대학교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12개국 46개 대학과의 교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프로그램, 해외문화 체험 등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리더 배출의 산실이 되고 있다. 지난 2006년 교환학생비율 전국 1위 대학(중앙일보)으로 선정된 인천대학교는 앞으로 보다 수준 높은 글로벌 프로그램을 완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 ▶ 교환학생 파견 : 7개국 223명
미국 19명, 프랑스 3명, 독일 3명, 러시아 12명, 일본 15명, 중국 178명, 대만 3명
- ▶ 어학연수 : 5개국 78명
중국 41명, 프랑스 3명, 독일 3명, 캐나다 25명, 일본 6명
- ▶ 교환학생 초청 : 6개국 72명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대만, 일본
- ▶ 자매결연 체결 : 12개국 46개 대학
미국 8개교, 중국 17개교, 러시아 5개교, 호주 2개교, 일본 6개교, 프랑스 2개교, 독일, 대만, 몽골, 인도, 캐나다, 카자흐스탄 등
- ▶ 해외문화 체험(하계방학 중)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호주 등에 매년 약 30팀(130명) 문화체험단 파견

<이색학과 소개>

동북아통상학부

- 1997년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성화 사업기관으로 선정돼 국비·시비·기업 지원 등 총 180억 원을 들여 설립되었다.
-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 등 4개 나라에 대한 프로급 통상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학생은 전과목 원어민강의를 실시하며, 전원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 재학 중 전원 1년간 해외 유학을 다녀올 수 있는 특전이 있으며,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제인력분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입학 자격은 수능 성적 2개 이상 1등급 이상인 자로 제한된다.

■ 국립대 확정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천대학교가 송도 신도시에 들어 설 유일한 종합대학교로서 소임을 다하고 산·학·연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시립대에서 국립대로의 전환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는 단 보름 만에 인천시민의 절반인 130만 명이 인천대학교의 국립대 전환 촉구 서명에 동참한 것에서도 증명됩니다. 인천시민은 열악한 인천의 교육환경으로 과중한 부담을 감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립대로 전환되면 시설투자나 연구투자 등 정부의 지원이 확대됨으로써 시와 시민에게 돌아가는 수혜 폭이 아주 커집니다.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 호 군 (인천대학교 총장)

■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국립대는 인천시민들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만큼 시민들의 지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시민들도 인천대학교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주면 좋겠습니다.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하려면 등록금과 정부예산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지역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매달 1만 원씩 후원하는 '인천대 사랑 1인 1계좌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자부심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자부심이 바로 세계적인 대학으로 자라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민들의 성원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자세를 갖고 국립대 전환의 의미를 살리고, 실현하려 합니다.

■ 송도 신 캠퍼스 이전이 인천대학교에 어떤 계기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송도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는 대학들 중 캠퍼스 전체가 옮기는 대학은 인천대학교가 유일합니다. 현재 이전을 추진하는 대학들은 교양학부나 일부 연구기능 또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인천대학교가 2년 후 현대적 첨단 연구·교육시설을 갖춘 송도 신 캠퍼스로 이전하게 되면 우선 경제자유구역의 첨단산업단지에서 필요한 정보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첨단산업의 고급인재 육성에 주안점을 둘 생각입니다. 외국 대학과의 협력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공동학위제 운영 및 외국 우수대학의 분교를 유치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되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됩니다.

■ 국립대 전환의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인천은 광역자치단체 중 국립대가 없는 유일한 도시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낙후되어 있었지요. 국립대 전환을 계기로 인천지역의 거점대학으로 거듭나 국가사업인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뒷받침 할 인재 양성 및 산·학·연 연계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학교 발전을 위한 전략은 어떻게 수립하십니까?

강한 국립대학교로 확고히 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을 둔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항만과 공항을 가진 지역 특성을 살려 물류와 통상 전문가를 배출할 것이

며 나아가 IT, BT, NT 전문가 양성 전략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천대학교는 동북아통상대학에 이어 중국학을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더불어 인천학연구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인천 역사와 문화를 전담하는 권위 있는 연구기관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이는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과 경제자유구역이란 잠재력을 극대화한 특성화가 결국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 대학 재정 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요?

국립대 전환을 앞두고 예상되는 재원은 대학발전기금 조성과 외부연구자금 확보 등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대학은 대학발전기금 모금에 나선지 6개월 만에 23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구성원의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향후 대학의 연구 능력을 끌어올려 국가 연구 개발사업, 특성화사업, 각 재단의 연구사업 등을 경쟁적으로 유치해 대학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삼을 것입니다. 국립대 전환 이후에는 5년간 매년 200억 원씩의 운영비를 보조받고, 2014년부터 10년간은 2천억 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대학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 앞으로 인천대학교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십니까?

인천대학교는 15년마다 큰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1979년 3월 개교 이래 1994년 3월 시립대로 탈바꿈했고 2009년 3월 국립대로 전환할 예정이어서 꼭 15년마다 변화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역사로 예측해 본다면 15년 후인 2024년에는 인천대학교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대학이 되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교수, 교직원, 학생들의 협력과 노력은 물론 시민 및 유관기관들의 지원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 인천대학교 이모저모

인천대학교 주요 연혁

- 1979. 01. 10 인천공과대학 설립 인가
- 03. 12 개교
- 12. 13 교명을 인천대학으로 변경
- 1988. 10. 29 종합대학으로 승격 인가
- 1994. 03. 01 시립 인천대학교로 설립자 변경
- 2004. 07. 29 제 4대 총장 박호군 박사 취임
- 2006. 04. 03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 조인식
- 2006. 11. 27 송도 신 캠퍼스 건설공사 기공식 개최
- 2006. 12월 말 기준
 - 학 부 : 9개 단과대학, 6개 계열, 5개 학부, 7개 학과(입학정원 1,680명)
 - 대학원 : 7개 대학원(일반대학원,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산업대학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 조인식

▶ 일시(장소) : 2006. 04. 03(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

▶ 참석 : 김진표 교육부총리,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박호군 총장,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

▶ 양해각서 주요내용

- 인천시는 인천대학교를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학 특수법인 형태로 전환하고(2009년 3월 예정), 의사결정기구의 개선, 총장선출제도의 개선, 대학회계제도의 도입 등 새로운 운영 시스템을 적용하며,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국가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한다.
- 인천시는 인천대학교를 신 캠퍼스 조성을 완료하여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국립대학 특수법인에 귀속시켜야 한다.



▲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 조인식

▶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 인천시는 2009년부터 5년간 매년 200억 원씩 대학운영비를 보조하며, 2014년부터 10년 동안 총 2,000억 원 규모의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국립대학 특수법인에 제공한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후 6년차(2014년 예정)부터 대학운영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시는 이상의 약속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 예산 확보, 관련기관 및 관련 당사자와의 협의 및 이견조정 등 우리대학의 국립대학 특수법인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약속했다.

송도 신 캠퍼스 이전 사업

-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2번지
- 공사비 : 3,565억 원
- 부지면적 : 15만 6,000평
- 연면적 : 53,737평
- 건축면적 : 27,790평
- 건폐율 : 20.04%
- 용적률 : 38.74%
- 착공일 : 2006. 11. 27
- 준공일 : 2008. 12월 말 예정
- 건축개요
- 2008년 말까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 25개동 건설

-대학본부, 도서관, 단과대학 건물, 종합강의동,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공장형실험실, 복지관, 체육관, 수영장 등

• 송도 신 캠퍼스에서는

-테마파크형, 환경친화형, 인텔리전트형, 사용자중심형으로 조성되는 신 캠퍼스는 학생들에게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현대적 연구시설 및 주변 환경으로 교수들의 연구 활동도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

-다국적 기업과의 공동연구, 외국 대학 분교 유치 및 외국 학교와의 공동학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

-대학의 첨단 장비와 문화공간, 체육시설 등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 기여할 예정

• 박호군 총장은 신 캠퍼스 기공식에서

“송도 신 캠퍼스가 기공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천시장님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원 및 지역 시민단체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다”며 “송도 신 캠퍼스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과 인천지역 고등교육의 획기적 개선 및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동북아의 중심대학을 넘어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